

# 작물 재배지 설치 영농형 태양광 개발

### 전남도, 산자부 연구개발사업 공모 선정...3년간 국비 60억원 지원 대학·연구기관 등과 컨소시엄...표준모델 실증 연구·시공기준 확보

전남도가 농작물 재배지에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 표준모델 개발에 나선다. 작물 위고 정식 로프탑형, 작물 간 수직 펜스형 표준모델, 유희부지 적용 영농형 등의 태양광 표준모델을 실증 연구하고, 시공 기준을 개발하는 것이다.

전남도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영농형 태양광 분야 3개 연구개발과제 공모사업에 지역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주관·참여한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이 모두 선정됐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 활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5월 영농형 태양광 분야 연구개발과제 공모를 추

진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영농형 태양광 분야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가이드라인을 넘어 표준모델 실증연구에 기반해 세계 최초로 시공기준을 확보하고 영농형 태양광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내 기업 ㈜유에너지, ㈜더블유피가 각각 작물 위 고정식 로프탑형, 작물 간 수직 펜스형 등 2개 과제의 주관기업 역할을 한다. 녹색에너지연구원, 한국에너지공과대, 동산대, 전남도농업기술원, ㈜칼선, 에스디엔(주) 등은 국내 영농형 태양광을 선도하고 있는 기관·기업·대학은 유희부지 적용 영농형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다. 이들 과제를 위해 2026년까지 국비 6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일찍이 영농형 태양광의 중요성을 인

식하고 발전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전남 농지의 5%에만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해도 9GW 내의 규모의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해 재생에너지100% (RE100) 전력 주 공급원, 농가 소득 증대 등 지역 발전 핵심자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실제 영광 월평마을에 국내 최초 3MW 규모의 주민주도형 영농형 태양광 상용화 모델 착공에 돌입했으며, 해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파크 등에 재생에너지100% 전력 공급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집적화단지도 추진 중이다.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안을 마련해 국회에도 적극 건의 중이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전남도가 영농형 태양광 연구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전 분야를 선도하고 있음을 증명한 셈"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소득증대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주민주도형 사업 확산을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디지털 격차 해소...배움터 교육

### 8월부터 키오스크 사용·생성형 AI 실생활 응용 등

전남도가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디지털 격차가 사회·경제적 차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디지털배움터 교육사업을 시작한다.

전남도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함께 '2024년 전라남도 디지털배움터 교육사업' 착수보고회를 지난 25일 목포 하당노인복지관에서 개최했다. 오는 8월부터 상설 디지털배움터 3개소, 디지털 체험존 5개소 등을 운영하고, 12월 말까지 총 3만6000여명에게 디지털 교육을 할 예정이다.

디지털 교육 장소인 디지털 배움터는 시군 수요 조사를 통해 광양 커뮤니티센터, 무안 남약복합주민센터, 보성군노인복지관으로 지정됐다. 실생활 활용 디지털 교육과 생활 속 자주 겪는 디지털 문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헬프데스크도 평일 상시 운영한다. 교육은 본인인증·공공서비스(정부24,

보조금 신청), 생성형 에이아이(AI) 이용, 스마트뱅킹, 피싱 예방, 병원 예약, 키오스크 주문, 누리소통망(SNS) 콘텐츠 제작 등 실생활 중심으로 구성된다.

디지털 배움터 직접 방문이 어려운 교육생을 위해 교육 수요가 많은 단체·기관으로부터 교육을 신청받아 전문강사를 파견하는 파견교육과 섬 지역 등 소외지역에 직접 찾아가는 에듀버스 디지털 교육도 운영한다.

또 도민은 누구나 디지털 체험존을 방문해 실생활 서비스 위주의 키오스크, 태블릿, 인공지능(AI) 스피커, 태블릿, 가상현실(VR) 기기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체험·실습할 수 있다.

황병은 전남도 스마트정보담당관은 "도민 누구나 디지털 신기술에 대응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도록 디지털 활용 역량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 e스포츠팀 '광주(GJ) 슬래셔' 창단

### 슬래셔이스포츠 구단 등과 협약

광주를 연고로 하는 이스포츠팀이 탄생했다. 광주시는 29일 광주이스포츠경기장에서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슬래셔이스포츠 구단과 광주지역 이스포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슬래셔이스포츠 구단은 오는 12월까지 '광주(GJ)'를 팀명에 포함한 뒤이터널 리턴 게임 종목의 지역 연고 내셔널리그 대회에 광주 대표로 활동하게 된다.

광주(GJ) 슬래셔 이스포츠팀은 지난 6월 창단

한 팀으로 한국e스포츠협회 공식종목인 이터널 리턴 마스터즈 시리즈 시드권(예선없이 대회 참가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랭크게임 글로벌 1등의 실력을 갖춘 선수들로 구성됐다.

광주(GJ) 슬래셔 이스포츠팀은 11월 2일까지 본격기가 열리는 '이터널 리턴 내셔널 리그'에 지역 연고팀으로 활동하게 된다.

국내 최초 지역 연고제를 도입한 '이터널 리턴 내셔널 리그'는 광주를 비롯한 세종, 부산, 대전(2개 팀), 인천, 경기, 성남까지 8개 팀(팀당 3명) 최대 24명이 참가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특산물 '무등산수박' 새 옷 입고 출하

### 8월 2일 판매 시작

광주 대표 특산물로 세계도 인정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오파드(GEOfood)인 '무등산수박'이 오는 8월 2일 새 옷을 갈아입고 출하한다.

광주시는 "지역 7개 농가에서 생산하는 무등산수박이 북구 금곡동 무등산수박공동직판장에서 다음 달 2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출하가격은 7kg 기준 3만원대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출하하는 무등산수박은 지오파드 선정 후 첫 선을 보이는 것으로, 10여 년 만에 포장도 새롭게 단장했다.

제품 포장은 무등산수박의 상징성을 표현하기 위해 진한 색을 사용하고, 주상절리대를 포함해 무등산에서만 자라는 무등산수박의 특징을 강조했다. 광주시는 설명했다.

광주시는 지난 3월 무등산수박생산자조합과 지오파드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지오파드로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어 4월에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국



제식품브랜드인 지오파드로 등록하고, 전 세계에 '무등산에서만 자라는 신비하고 거대한 수박'을 홍보하고 있다. 지오파드는 세계지질공원 지역에서 재배하거나 생산한 농산물·음식 등에 적용되는 국제 식품 브랜드다.

광주시는 또 지역에서 유일하게 조선 시대 임금님 진상품이었던 무등산수박의 명성에 걸맞게 포장도 고급스러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해 무등산수박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최종 디자인을 선정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 규제자유 특구·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 준비 박차

### 특구 과제 기획 TF 출범

광주시가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을 위한 신청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광주테크노파크에 따르면 특구 과제 기획 태스크포스(TF)는 최근 회의를 열어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 신청 과정을 논의했다. TF는 광주시, 광주경제자유구역청, 광주테크노파크, 전남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등 관계자 19명으로 구성됐다.

광주시는 8월 말 규제자유특구, 10월 말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며, 인공지능, 모빌리티, 헬스케어, 에너지 등 분야 과제를 기획해 제출하기로 했다.

규제자유특구는 바이오 생체의학·마이크로 의료 로봇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혁신 특구는 모빌리티 분야를 핵심 과제로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는 현재 무인 저속특정차, 그린 에너지 저장장치(ESS) 등 2개 사업과 관련해 규제자유 특구 지정을 받은 상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혁신산업 또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현재는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37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 등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로 부산, 강원, 충북, 전남이 지정됐으며 2027년까지 10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

#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